

불교학술세미나 '풍성'

28일~6월4일 7개 단체서 마련 '21세기 불교의 역할' 등 탐구

◇학술대회 일정

날짜	주 제	장 소	주최
5월28일	경허선사 87주기 추모 제1회 학술회의 경허선사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 제2회 세계학술연구발표회	서울 무봉선원	한국불교학술연구원 (02)541-0002
	제42회 전국역사학회(29일까지)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동국대 학술회 1층 덕암세미나실	한국불교학회 (02)2260-3122
	제42회 전국역사학회(29일까지)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서강대	한국사상학회 (02)705-8327
5월29일	세계학술발표회 및 불교문화 정기발표회 종교·20세기에서 21세기로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1차 세미나	서울대	한국종교학회 (02)880-6237
	제42회 전국역사학회(29일까지)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	동국대 90주년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 (02)797-0585
5월31일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	한국교수불자연합회 (02)720-6618
6월4일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	동국대 중강당	동국대 교육연구원 (02)2260-3515

한 세기를 마감하고 맞는 새로운 세기, 21세기에 불교가 담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한국불교학술연구원, 한국불교학회, 한국종교학회 등 주요 불교학술단체들은 28일부터 6월4일까지 전환 시대의 불교를 조명하는 세계학술대회(도표 참조)를 각각 마련한다.

20세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주제로 28일부터 29일까지 서강대에서 제42회 전국역사학회 대회가 열린다. 28일에는 주제에 대한 토론의 장을 펼치고 29일에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역사교육 경제사 과학사 고고학 미술사 등 8개 분야로 나눠 발표가 이뤄진다.

한국종교학회(회장 김희성)도 서울대에서 29일 오전9시부터 '종교·20세기에서 21세기로'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연다. 이날 불교문화에서 박경준 교수(동국대)가 '21세기 문명의 불교적 모색'을 발표하는 등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21세기를 맞이할 것인가를 논의한다. '20세기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집

중적으로 탐구하는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준)의 부처님오신날 기념 학술대회는 31일 오후2시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20세기의 종언과 21세기 시작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사회문화적, 정치경제적, 사회복지적, 정보사상적 측면으로 접근한다.

이밖에 경허선사에 열반 87주기를 맞아 펼쳐지는 한국불교학술연구원(원장 이은운)의 제1회 학술회의는 28일 10시 서울 무봉선원에서 '경허선사의 선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경허선사의 선사상을 비롯해 선정관, 결사, 선사, 불교사적 위치 등이 발표된다.

28일 오후1시 동국대 학술문화관1층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회장 김인덕)의 제31회 불교학술연구발표회에서는 대승사상을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근본불교와 대승정신의 본질', '보리달마의 대승선이 미친 영향',

'대승경전의 본성과 창조적 해석학의 과제'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의 비판불교의 비판적 검토 제1차 세미나는 29일 오후 2시부터 동국대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비판불교의 이론적 좌표', '비판불교가 제시하는 형이상학과 철학적 원리' 등이 발표된다. 6월4일 오후2시에는 동국대 교육연구원(원장 유시규)이 '한국불교 종단의 재가교육'에 대한 발표회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날 세미

나에서는 재가불자의 교육정책, 조계종·천태종·진각종의 재가교육, 한국 불교에 있어서 재가불자의 역할 등이 발표된다.
김지연 기자(jygang@buddhopia.com)



만해스님 탄신 120돌 삶-문학 집중조명 시집·소설 잇달아 출간

만해 한용운스님의 탄신 1백20주년을 맞아 만해스님과 관련된 시집, 소설 등이 잇달아 나와 눈길을 끈다.

미당 서정주시인의 <한시선>(민음사), 고은시인의 <님의 침묵>(민음사), 정찬주씨의 장편소설 <만행>(민음사), 불교문학가 김효운씨의 <님의 침묵(전3권)>(말말사) 등이 바로 그것.

미당 서정주시인의 <한시선>은 만해 한용운스님의 한시 74편을 간추린 만해 시선집이다. 이 시선은 74년 '만해 한용운 한시선'이란 이름으로 출간됐지만 곧 절판되면서 잊혀졌다. 수록된 한시 중에는 '새로 밝은 날에(원제 新晴)'같은 선시도 있지만 재가불자의 면모가 강했던 만해의 인간적 심정을 담은 것도 적지 않다.

정찬주씨의 장편소설 <만행>은 액자소설형식으로 '이 시대에 만해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찾아가는 구도소설이다. 교수 임용에서 번번이 떨어져 자살을 시도하는 주인공 민준이 만해의 속가제자인 지행을 만나 만해의 전기를 쓰면서 자신의 삶도 발견한다는 줄거리다. 저자는 만해평전을 읽다가 정인보선생이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조선에는 만해가 있다'에 감동해 출간하게 됐다.

김효운씨의 <님의 침묵>은 사상가로서 만해의 삶에 대한 평전소설로 6년전 펴낸것을 재정리하여 출간했다. 고은시인은 만해스님 '시선집(님의 침묵)'을 이말달 민음사에서 출간한다.

김종근 기자(gamja@buddhopia.com)



동화사 통일대불 앞 초파일 봉축음악회 4천여 외부대중 '열기'

팔공산 동화사(주지 성덕)는 대구 MBC와 공동으로 15일 오후7시 통일대불 앞 특별무대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동화사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30여명의 운문사승가대성들이 울리는 저녁예불과 진표, 도일스님의 법고시연을 시작으로 2시간여동안 진행돼 산사를 찾은 4천여 명의 시민들을 매료시켰다.

롬비니 동산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무용으로 형상화한 이애주 교수의 불교무용 '비밀감성상' 등 불교적 내용을 많이 가미시킨 이날 음악회는 무용과 음악, 대중음악과 클래식, 서양음악과 국악, 불교의식등을 적절히 섞어 훌륭한 앙상블을 이뤄냈다.

법현스님의 깊고 중후한 첼로를와 김일수씨의 감미롭고 애절한 색소폰 연주는 동화사를 찾은 시민들에게 웅장한 감동을 선사했다. 테너 입산과 소프라노 김선애의 성악, 국민가수 이선희씨와 댄스그룹 코요테의 대중가요도 갈채를 얻어냈고 국악인 이호연 정은하 등은 태평기 박연복포 등을 불러 노인들을 즐겁게했다.

이윤호 기자(yhlee@buddhopia.com)

화제의 전시

송주섭씨 설치전

30일까지 통도사 성전암

삼천세계 사부대중의 염원을 담은 '테라코타 설치전'이 31일까지 통도사 성전암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설치전에서 작가 송주섭씨는 전통가마에서 구워낸 '인물' 테라코타 1천여 점을 전시한다. 송씨는 아우성치는 듯한 표정을 짓는 인물 테라코타를 통해 동시대 불성을 찾는 불자들의 깊은 염원을 형상화 했다.



김기철씨 작품전

28일부터 롯데화랑

운회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계속해온 화가 김기철(한국미술협회 이사) 씨의 개인전이 28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롯데백화점 11층 롯데화랑에서 열린다. 여러 가지 사물들을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표현하고 있는 김씨의 이번 전시회에는 이승의 벽을 넘어 더 넓은 깨달음의 시공으로 나가려는 작가의 의지가 엿보이는 '고리(사진)' 등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영양산지동 모전석탑서 석재사리함 발견

경상북도 지정문화재 영양산지동 모전3층석탑(제83호)에서 사리함으로 추정되는 석재유물이 발견됐다.

영양군에 따르면 3층석탑 보수공사중 2층 옥개석 하부에서 돌로 된 두덩이 덮여진 채 발견된 이 석재 사리함은 가로 21cm 세로 17cm 높이 1cm 크기.

제작기법이 거친 것으로 보아 통일신라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재 사리함에서는 사리 1과와 입과 여개 부분만이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깨어진 '녹색 유리 사리병', 사리병 뚜껑 표면의 '금박편' 등이 발견됐다.

영양군은 현장 보존을 위해 공사를 중단하고, 문화재관리국에 보존 처리 및 정밀조사를 의뢰했다. 또 탄화가 심한 종이류가 발견돼, 보존처리 성과에 따라 석탑과 곁에



◇경북 영양군 영양을 삼지리 소재 영양산지동 모전 3층석탑에서 4월28일 발견된 석재사리함.

대한 중요한 기록이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발견된 석재 사리함은 경주 분황사 3층석탑(국보 제30호) 해체·보수시 출토된 것이 유일하다.

오종욱 기자

달라이라마 10월 세계 6대도시 순회 종교음악제 연다

티벳의 종교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0월 전경과 폭력으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는 미국 로스

앤젤레스, 독일의 드레스덴 등 세계 6대 도시에서 '세계 종교음악 축제'를 마련한다.

달라이 라마는 17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간의 정신 속에 잠재된 내면의 갈망과 인식을 표현하는 여러 형식 가운데 음악이 아마도 가장 보편적이다"며 "다양한 민족과 종교, 문화의 사람들에게 평화와 동료를 심어주기 위해 '세계 종교음악 축제'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불교도들의 영향, 그리고 리오 수사들의 성가, 호주 원주민들의 토양 송배의 노래, 아프리카 미국인들의 복음 음악 등이 공연되는 이 축제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점으로 독일의 드레스덴, 남아공화국의 케이프타운, 호주 시드니, 일본의 히로시마, 인도의 방갈로레 등에서 각각 열린다.

김주익 기자(jkim@buddhopia.com)

加 토론토서 '고은시인의 밤'

캐나다 토론토 한국문화협회가 주최하는 '고은 시인의 밤'이 8일 캐나다 토론토 한인여성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낭송회에서 고은 시인은 '나의 문화와 인생'을 강연하고 시를 낭송했다. 김재홍 교수(경희대)는 한국문학, 고은의 문학세계 등을 강의했다. 7일에는 캐나다 요크 대학 주최로 '북아메리카에 있어서 한국문학의 역할과 위치' 심포지엄과 시낭송회가 열렸다.

김지연 기자

홍순지씨 찬불가CD 출반

성악가 홍순지(37·불교사합창단지휘자)씨가 명상적인 음악으로 선계(禪界)를 노래한 찬불가 CD 앨범 '세속에서의 명상'을 내놓았다.

나용해근, 부용영관, 청허휴정, 편양언기등 선승들의 선시(禪詩)에 전통 5음계를 적용해 심오한 선의 세계를 담아낸 10곡의 노래가 수록된 이 앨범은 불성 연마를 강조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표현했다는 평이다.

오종욱 기자

남원 정령치 마애불 훼손위기

보물 1123호로 지정된 전남 남원 정령치 마애불상군에서 마애불상 2구가 추가 발굴됐지만, 관계당국은 지금까지 조사·보호 등의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아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남원항토문화연구원(회장 최명우, 이하 연구회)가 정령치에서 마애불상 2구를 추가 발굴한 것은 지난해 8월, 연구회는 이 지역의 불상수와 명문에 대한 조사와 보호가 절박하다고 판단, 문화재관리국·전라북도·남원시에 재조사를 건의했다.

그러나 관계당국은 예산문제를 들어 여태껏 추가 발굴된 불상에 대해 어떤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귀중한 국가문화재가 소멸 될 위기에 놓여버렸다. 마애불상이 조각된 바위의 석질이 약해, 불상과 명문의 흔적이 점점 소멸되어가고 있는 실정.

연구회는 "마애불상군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소멸될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지정문화재마저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관계당국이 빠른 시일내 정확히 조사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은사 사적기>에 따르면 "신라 헌강왕 1년(875년) 도선국사가 불상군 주변에 개령암(開嶺巖)이라는 암자를 창건했다"고 기록돼 있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국내 최초 단행본 출간!

부처님은 전생에 청개구리였다!

부처님 전생이야기

서희건 엮음
(문화재 전문위원)

25000년 전에 씌어진 우화처럼 재미있고 눈물겨운 부처님 전생의 보물창고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은 기구하기 짝이 없다.
깨아귀, 거북이, 꼬마에서부터 아이 낳는 여자, 도둑으로도 태어났었다. 한마디로 이 책은 부처가 되기 전 보살로 살았던 전생 이야기인 것이다. 이들 설화는 통화처럼 아주 재미있고도 눈물나기도 한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슬우화나 아라비안나이트, 우리나라 삼국사기까지 영향을 주었다. (전2권 | 각권 216쪽 | 21,500원)

박삼중 스님의 인연 이야기

처음으로 고백한 삼중 스님의 진솔한 라이프 스토리!

세 명의 의붓아버지를 둔 기막힌 팔자 이야기부터, 출가·환속·출가에 얽힌 숨기고 싶었던 여자 이야기, 그리고 사형수의 대부가 되기까지 처음으로 공개한 자전 에세이!

선대문 구차소 담 뒤에서 태어난 삼중 스님! 첫돌날 부처님을 모독하고 세상을 등진 젊은 아버지, 형무소에 수감된 또 다른 남자를 시종들기 위해 여교도관이 된 어머니! 그 어머니의 거듭된 재혼으로 세 명의 의붓아버지 곁에서 눈칫밥 먹던 소년 시절, 그리고 맨발의 출가와 환속으로 이어진 구도의 길에 만난 여인들과 애뜻한 사랑과 이별, 재소자 교화에 나선 이후 전두환 전 대통령, 큰손 장영석, 강신명 목사, 최 소파가 수녀 등과의 만남에서부터 보통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너무나도 길진 인연 이야기들!

(제1권) 다시 태어난 스님 인연록 | (제2권) 그 만남이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
(전2권 | 신국판 | 각권 17,500원)

문학수첩 전화: (02) 790-5999 팩스: 790-6656
http://www.moonhak.co.kr *이 책의 수익금(인세)은 재소자를 위해 쓰여집니다